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④	①	⑤	①	①
6	7	8	9	10
⑤	②	④	①	①
11	12	13	14	15
②	③	③	③	③
16	17	18	19	20
②	④	⑤	②	⑤
21	22	23	24	25
④	⑤	②	④	③
26	27	28	29	30
③	③	②	②	②
31	32	33	34	35
①	②	④	①	⑤
36	37	38	39	40
⑤	④	②	③	⑤
41	42	43	44	45
③	③	④	④	④
46	47	48	49	50
①	⑤	⑤	②	③

01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 ②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축조하였다.
- ③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 ④ 농경과 목축을 통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 ⑤ 비파형 동검과 거친무늬 거울 등을 제작하였다.

정답> ④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에서 (가) 시대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약 8천 년 전에 형성된 집터에서는 (가)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를 비롯하여 이음낚시*, 그물추** 등이 출토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신석기를 가리킬 수 있다. 참고로 이음낚시(바늘)와 그물추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된 도구로, 이외에도 물고기를 찢어서 잡을 때 사용하는 뼈로 만든 작살도 있었다.

*이음낚시: 허리와 미늘을 각 따로 만들어 끈으로 묶어 사용하였다. 둥근 모양을 만들기 어렵고 또 깨지기 쉬워서 동물의 뼈를 갈아서 미늘을 만들었다. 주로 먼 바다에 나가 대구나 다랑어 등을 잡을 때 사용하였다.

**그물추: 그물에 매달아서 그물이 물 속에 가라앉게 하는 어로 도구이다. 어망추(漁網錐)라고도 한다.

농경과 목축을 통하여 식량을 생산한 시대는 신석기 시대이다.

오답 해설>

- 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이다.
- ②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축조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 ③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이다.
- ⑤ 비파형 동검과 거친무늬 거울 등을 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02 - 초기 국가, 삼한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②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았다.
- ③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④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⑤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정답> ①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제목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가, 가운데 말풍선에는 '신지, 읍차 등으로 불리는 지배자가 있었습니다'가,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목지국, 사로국, 구야국 등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가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초기 국가, 삼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삼한에는 신성 지역인 소도(蘇塗)*가 존재하였다.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②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은 나라는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초에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영토(고조선 서방 2천여 리)를 빼앗긴 적이 있다.
- ③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 ④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 ⑤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한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03 - 백제

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벼슬은 16품계가 있다. 좌평은 5명으로 1품, 달솔은 30명으로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한솔은 5품, 나솔은 6품이다. 6품 이상은 관(冠)을 은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하였다.

○ 그 나라의 지방에는 5방이 있다. 중방은 고사성, 동방은 득안성, 남방은 구지하성, 서방은 도선성, 북방은 웅진성이라 한다.

- 『주서』 -

- ①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 ②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③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이 있었다.
- ④ 위화부, 영객부 등의 중앙 관서를 설치하였다.
-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정답> ⑤

위에 '벼슬은 16품계가 있다. 좌평은 5명으로 1품, 달솔은 30명으로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한솔은 5품, 나솔은 6품이다. 6품 이상은 관(冠)을 은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래에 '그 나라의 지방에는 5방이 있다. 중방은 고사성, 동방은 득안성, 남방은 구지하성, 서방은 도선성, 북방은 웅진성이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출처, 『주서(周書)』 '백제전').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는 백제임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오답 해설>

- ①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을 둔 나라는 신라이다.
- ②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 ③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이 있었던 나라 역시 고구려이다. 고구려는 전국을 5부(五部)로 나누어 각 부에 육살을 파견하였다. 참고로 육살 아래에는 각 성에 처려근지[도사]가 파견되었고, 소성에는 가라달(可邏達)·누초(婁肖)가 파견되었다. 고구려의 지방관은 행정과 군정을 모두 관장하는 군정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 ④ 위화부, 영객부 등의 중앙 관서를 설치한 나라는 신라이다. 참고로 위화부는 진평왕 3년인 581년에, 영객부는 진평왕 43년인 621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위화부는 관리의 인사를 담당할 일종의 '이부'이고, 영객부는 외국 사신의 접대를 담당할 기관이다(삼국 통일 후 신라는 중앙 관제로 13부를 둬).

04 - 고구려 광개토 대왕

4.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내 용	이미지
원년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다	이미지
10년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다	이미지
13년 후연을 공격하다	이미지
18년 왕자 거련(巨連)을 태자로 삼다	이미지

- 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 ③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④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하였다.
- ⑤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정답> ①

'한국사 전자 사료관'이라는 제목 아래 '고구려'의 '왕대별 보기'가 검색어로 나와 있다. 이어 원년에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다', (재위) 10년에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다', (재위) 13년에 '후연을 공격하다', (재위) 18년에 '왕자 거련(巨連)을 태자로 삼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검색창에 들어갈 왕은 곧 고구려의 제19대 국왕인 광개토 대왕(재위 391-41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391년). 영락(永樂)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이다.

오답 해설>

- ②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372년의 일이다.
- ③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은 고구려 미천왕 14년인 313년의 일이다.
- ④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한 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인 194년의 일이다(빈민 구제책).
- ⑤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고구려 영류왕 14년(631)에서 보장왕 7년(647)까지의 일이다. 참고로 고려 때의 천리장성은 덕종 2년(1033)에서 정종 10년(1044)까지 축조되었다.

05 - 화쟁국사 원효의 활동

5.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1점]



- ①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 ②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③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④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지었다.
- ⑤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정답> ①

'이곳은 (가)의 생애와 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실입니다. 그는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을 저술하여 불교 교리 연구에 힘썼으며, 무애가를 짓고 정토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통일 신라 시대의 고승, 화쟁국사 원효(617~680)임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원효는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인물은 (통일)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 ③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인물은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이다(643, 선덕 여왕 12). 황룡사 구층 목탑이 실제로 완공된 것은 646년(선덕 여왕 15)의 일이다.
- ④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지은 인물은 신라의 고승, 원광(555~638)이다. 진평왕이 이를 명한 것은 재위 30년인 608년이고, 원광이 지은 결사표(乞師表)를 수[양제]에 사신을 파견할 때 바친 것은 3년 뒤인 611년의 일이다(결사표의 원문은 현재 전하지 않음).
- ⑤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편찬한 승려는 고려의 고승, 각훈(?~?)이다(1215, 고종 2).

06 -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

6.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3점]

연흥 2년에 여경[개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신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우호가 단독하였는데, 고구려의 선조인 쇠[고국원왕]가 우호를 가버이 깨트리고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우리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신의 선조인 수[근구수왕]는 군대를 정비하고 공격하여 쇠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다니, 이후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져 침략하고 위협하니 원한이 쌓였고 전쟁의 참화가 30여 년 이어졌습니다. …… 속히 장수를 보내 구원하여 주십시오." - 『위서』 -

- 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였다.
- ②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 ③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④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하였다.
- 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추진하였다.

정답> ⑤

'연흥 2년에 여경[개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신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우호가 단독하였는데, 고구려의 선조인 쇠[고국원왕]가 우호를 가버이 깨트리고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우리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신의 선조인 수[근구수왕]는 군대를 정비하고 공격하여 쇠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다니, 이후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져 침략하고 위협하니 원한이 쌓였고 전쟁의 참화가 30여 년 이어졌습니다. …… 속히 장수를 보내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로, 백제의 개로왕(재위 455-475, 제21대)이 중국 북조의 북위에 국서를 보내어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472, 백제 개로왕 18).

*연흥(延興): 중국 남북조 시대 북위의 제7대 황제인 효문제 때 사용한 연호이다(471~476년). 남조의 제나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같은 명칭의 연호를 여러 시기에 여러 나라가 사용).

개로왕이 위와 같은 국서를 북위에 보낸 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427, 고구려 장수왕 15) 남진을 추진하여 백제가 압박을 받은 때문이었다. 이후 475년에 결국 개로왕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도읍인 한성이 함락되면서 전사하였다(백제 한성 시대 끝남).

오답 해설>

①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이 (중국의 수 군대에 대항하여) 살수에서 승리한 것은 612년(고구려 영양왕 23)의 일이다(살수 대첩).

② (백제의) 동성왕(재위 479-501, 제24대)이 나제 동맹을 강화한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은 493년(백제 동성왕 15, 신라 소지왕 15)의 일이다. 백제와 신라가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등(475, 장수왕 63) 5세기 후반 들어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 나제 동맹이라고도 하며, 당시 백제 동성왕의 이름은 모대(牟大)였다[말다(末多) 또는 마제(摩帝)라고도 부름].

③ (백제의) 성왕(재위 523-554, 제26대)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554년의 일이다. 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옥천 지방으로, 일본서기에는 함산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④ (백제의 장수) 계백(?~660)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한 것은 660년의 일이다(660.7). 황산벌은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이다.

07 - 보덕국왕 책봉

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가)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12성과 3,500여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해 왔다. 왕이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의복·물품·식량·집을 주었다.
- (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다.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필을 얻었는데, 남겨 놓은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

- ①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 ②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다.
- ③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 ④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⑤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에 맞서 싸웠다.

정답> ②

(가)에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12성과 3,500여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해 왔다. 왕이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의복·물품·식량·집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로, 여기서 연정토(?~?)는 연개소문(?~665)의 동생이다. 연개소문 사후 그의 세 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666년 신라에 항복하였다. 668년 사신으로 당에 건너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문무왕 14년인 674년에 보덕국왕으로 책봉되는 안승(?~?)이 그의 아들이다.

(나)에서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다.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필을 얻었는데, 남겨 놓은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군과 당군 사이에 매소성 전투가 벌어진 것은 675년(문무왕 15) 9월의 일이다. 참고로 기벌포 전투[해전]이 벌어진 것은 이듬해인 676년 11월의 일이다. 또 이근행(?~682)은 당의 장수이다. 앞서 밝혔듯이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한 것은 674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한 것은 642년(백제 의자왕 2)의 일이다.

③ 김춘추(604~661)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킨 것은 648년(신라 진덕 여왕 2)의 일이다(나당 동맹).

④ 연개소문(?~665)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것은 642년의 일이다(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내세움).

⑤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에 맞서 싸운 것은 663년 9월의 일이다(백강 전투). 부여풍은 백제 의자왕의 다섯째 아들이다. 풍장(豊璋)이라고도 한다.

08 - 원종과 애노의 난

8. 다음 가상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 ②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 ③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 ④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 ⑤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에 웅천주 도독 김현창이 난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으로 정했다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모양이야'라는 말이 나와 있다. 웅천주 도독 김현창의 난이 일어난 것은 (통일) 신라 헌덕왕 14년인 822년의 일이다[헌덕왕(재위 809-826, 제41대). 김현창(?~822)은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자 김주원(?~?)의 아들이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것은 (통일) 신라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사벌주는 지금의 경북 상주).

오답 해설>

- ① 거칠부(502~579)가 국사를 편찬한 것은 신라 진흥왕 6년인 545년의 일이다.
- ②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 ③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때의 일이다[각 687(신문왕 7)/689(신문왕 9)].
- ⑤ 이차돈(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것은 신라 법흥왕 14년인 527년의 일이다(*528년 공인설 있음).

09 - 고려 태조의 정책

9. 밑줄 그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을 설치하였다.
- ② 12목에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 ③ 외침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 ④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 ⑤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①

'저는 지금 신승겸 장군의 충정을 기리는 대구 표충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공산 전투 당시 위기에 빠진 왕을 구하기 위해 싸우다가 이곳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승겸 장군(?~927)'과 927년에 있었던 '공산 전투'가 나온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왕'은 고려 태조 왕건(재위 918-94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을 설치한 왕이 곧 고려 태조이다(918, 태조 원년).

오답 해설>

- ② 12목에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한 왕은 고려 성종이다(983, 성종 2).
- ③ 외침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한 왕은 고려 현종이다 [1009(현종 즉위년)~1029(현종 20)]. 개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감찬(948~1031)이 건의하였다.
- ④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한 왕은 고려 예종이다 (1119, 예종 14).
- ⑤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시행한 왕은 고려 광종이다(958, 광종 9).

10 - 발해 무왕의 업적

10.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36. 궁궐 안
 왕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문예에게 말하고 있다.
 왕: 흑수 말갈이 몰래 당에 조공하였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흑수 말갈을 정벌하라.
 대문예: 당에 조공하였다 하여 그들을 바로 공격한다면 이는 당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당과 원수를 지면 멸망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 ① 장문휴를 보내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 ③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④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 ⑤ 고구려 유민을 모아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정답> ①

'#36. 궁궐 안, 왕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문예에게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흑수 말갈이 몰래 당에 조공하였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흑수 말갈을 정벌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에 대문예가 '당에 조공하였다 하여 그들을 바로 공격한다면 이는 당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당과 원수를 지면 멸망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시나리오)로, 여기 나오는 대문예(?~?)는 발해의 제2대 국왕인 무왕(재위 719-737, '대무예')의 동생이다. 무왕 8년인 726년에 중국 당의 현종이 흑수 말갈을 흑수주로 개칭하고 관리인 장사(長史)를 두자, 당이 발해를 침공할 전조하고 믿은 무왕의 명에 따라 흑수주를 공략하여 갔다가 당에 투항하였다(주어진 자료처럼 출전 전에 대문예는 형인 무왕의 정벌 명령에 반대). 장문휴(?~?)를 보내 등주를 공격한 왕이 곧 발해의 무왕이다(732, 발해 무왕 14).

오답 해설>

-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춘 왕은 (통일) 신라의 신문왕이다[각 687(신문왕 7)/685(신문왕 5)].
- ③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왕은 백제의 성왕이다(538, 성왕 16).
- ④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한 왕은 신라의 문무왕이다(673, 문무왕 13).
- ⑤ 고구려 유민을 모아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운 왕은 발해를 건국한 고왕[대조영]이다(698).

11 - 궁예

11.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초대합니다

천 백년 태봉의 이름, 태봉제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가) 이/가 세운 나라 태봉! 태봉의 도읍 철원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태봉제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요 행사

태봉 제례 어가 행렬

■ 기간: ○○○○년 ○○월 ○○일~○○일
 ■ 장소: 김원도 철원군 종합 운동장 및 철원군 일원

- 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 ② 미륵불을 자처하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③ 신라를 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 ④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 ⑤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정답> ②

'천 백년 태봉의 이름, 태봉제'라는 제목 아래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가)이/가 세운 나라 태봉! 태봉의 도읍 철원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태봉제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요 행사로 태봉 제례와 어가 행렬이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918)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궁예는 재위 11년인 911년에 후고구려의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연호 수덕만세). 궁예는 미륵불을 자처하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른바 '신정적 전제주의'를 추구한 것으로 이때부터 악정(惡政)을 펼치다 결국 왕건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축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한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재위 918-943)이다.
- ③ 신라를 공격하여 경애왕(재위 924-927, 제55대)을 죽게 한 인물은 후백제의 견훤(재위 900-935)이다(927).
- ④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한 인물은 고려의 제4대 국왕인 광종(재위 949-975)이다(956, 광종 7).
- ⑤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장악한 인물은 (통일) 신라의 장보고(?~846)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12 - 묘청의 난

12.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르네
남포에서 님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이 시의 제목은 '송인(送人)'으로, 고려 시대의 문인 정지상이 서경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서경 출신인 그는 묘청 등과 함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개경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나자 김부식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918	1019	1126	1270	1351	1392
	(가)	(나)	(다)	(라)	(마)
고려 건국	귀주 대첩	이자겸의 난	개경 환도	공민왕 즉위	고려 멸망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르네/남포에서 님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이라는 시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이 시의 제목은 송인(送人)으로, 고려 시대의 문인 정지상이 서경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서경 출신인 그는 묘청 등과 함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개경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나자 김부식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묘청'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에서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사건'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에 일어난 묘청의 난임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연표에서는 이자겸의 난(1126년)과 개경 환도(1270년) 사이인 '(다)' 시기에 해당한다.

13 - 만적의 난

1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가) 최충헌 형제가 왕을 협박하여 창락궁에 유폐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

(나) 유경이 최의를 죽인 뒤, 왕에게 아뢰어 정방을 편전 옆에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요 사무를 모두 결정하였다.

- 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 ②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에서 항전하였다.
- ③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 ④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 ⑤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정답> ③

(가)에 '최충헌 형제가 왕을 협박하여 창락궁에 유폐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제19대 왕인 명종(재위 1170-1197)를 폐하고, 평랑공 왕민을 왕[신종(재위 1197-1204), 제20대]으로 세운 사건을 가리킨다(1197, 고려 명종 27).

(나)에는 '유경이 최의를 죽인 뒤, 왕에게 아뢰어 정방을 편전 옆에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요 사무를 모두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문신 유경(1211~1289)이 별장 김준(?~1268) 등과 모의해 최씨 무신 정권의 4대 집권자인 최의(집권 1257-1258)를 죽인 사건을 가리킨다(1258, 고려 고종 45). 이로써 최씨 무신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만적(?~1198)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한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강조(?~1010)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고 목종까지 폐위시킨 것은 고려 목종 12년인 1009년의 일이다(강조의 정변). 거란의 제2차 침입의 빌미가 되었다.
- ②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에서 항전한 것은 고려 원종 11년인 1270년의 일이다(~1271, 이후 배중손이 전사하고 김방경이 삼별초를 제주도로 옮겨가 이끔).
- ④ (서경 유수) 조위총(?~1176)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한 것은 고려 명종 4년인 1174년의 일이다(~1176)(조위총의 난).
- ⑤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1173)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은 고려 명종 3년인 1173년의 일이다(김보당의 난).

14 - 원 간섭기에 볼 수 있는 모습

14.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수령 응주 묘지명입니다. 왕족인 왕온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으나, 딸이 공녀로 원에 끌려가자 그 슬픔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령 응주가 살았던 이 시기에는 많은 여성이 공녀로 끌려갔습니다.



- ① 농사직설을 편찬하는 학자
- ②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 ③ 정동행성에서 회의하는 관리
- ④ 삼강행실도를 읽고 있는 양반
- ⑤ 백운동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

정답> ③

'이것은 수령 응주 묘지명입니다. 왕족인 왕온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으나, 딸이 공녀로 원에 끌려가자 그 슬픔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령 응주가 살았던 이 시기에는 많은 여성이 공녀로 끌려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공녀'라는 말에서 밑줄 그은 '이 시기'는 고려 시대의 원 간섭기*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왕온의 부인이었던 수령 응주(1281~1335)가 사망한 해는 고려 충숙왕 복위 4년인 1335년이다.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된 것은 고려 충렬왕 6년인 1280년의 일이다. 정동행성의 정식 명칭은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으로, 여기서 '정동'은 일본 정벌을 뜻하고, '행중서성'은 중앙 정부 기관인 (원) 중서성의 지방 파견 기관을 뜻한다.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기능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농사직설이 관찬(官撰)으로 간행된 것은 조선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 ② (거란의 제2차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의 일이다(~선종 4년인 1087년까지). 초조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었다(1232, 고종 19).
- ④ 삼강행실도가 편찬된 것은 조선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
- 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세워진 것은 조선 중종 38년인 1543년의 일이다.

15번

오답 해설>

- ①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한 승려는 고려의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다.
- ②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수행 방법으로 제시한 승려는 고려의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
- ④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한 승려는 (통일) 신라의 보조선사 체징(804~880)이다(840, 문성왕 2)[문성왕(재위 839-857), 제46대][전남 장흥군 가지산 보림사에 개산]. 도의 선사(도의 국사)(?~825)를 종조(제1조)로 삼았다.
- ⑤ 승과가 생긴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에 과거제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왕사 제도가 처음 채택된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조선 초까지 지속).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모두 31명의 왕사가 임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주어진 자료에 제시된 승려들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15 - 신라와 고려 시대의 승려들

15. (가)~(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은/는 화엄 사상의 요지를 정리한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였다. 또한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고,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강조하였다.
- (나) 은/는 귀법사의 주지로서, 왕명에 따라 민중을 교화하고 불법을 널리 퍼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향가인 『보현십원가』 11수를 지어 화엄 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 (다) 은/는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였다. 31세에 송으로 건너가 고승들과 불법을 토론하고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귀국하였다.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창시하였으며, 교선 통합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 (라) 은/는 12세에 출가하였다. 수행상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천태의 교리에 의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 결사를 결성하였다.

- ① (가) -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② (나) -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 ③ (다) -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 ④ (라) -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 ⑤ (가)~(라) - 승과에 합격하고 왕사에 임명되었다.

정답> ③

'(가)은/는 화엄 사상의 요지를 정리한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였다. 또한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고,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해동 화엄의 시조로 불리는 신라의 원교국사 의상(625-702)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의상이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것은 신라 문무왕 8년인 668의 일이고, 경북 영주에서 부석사*를 세운 것은 문무왕 16년인 676년의 일이다.

*부석사 창건 설화: 당에 유학했던 대사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그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용으로 변하여 귀국길을 도왔다. 신라에 돌아온 대사는 불법을 전파하는 중 자신이 원하는 절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다른 종파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때 선묘룡이 나타나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신하여 절의 지붕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하자 많은 무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절을 '돌이 공중에 떴다'는 의미의 부석사(浮石寺)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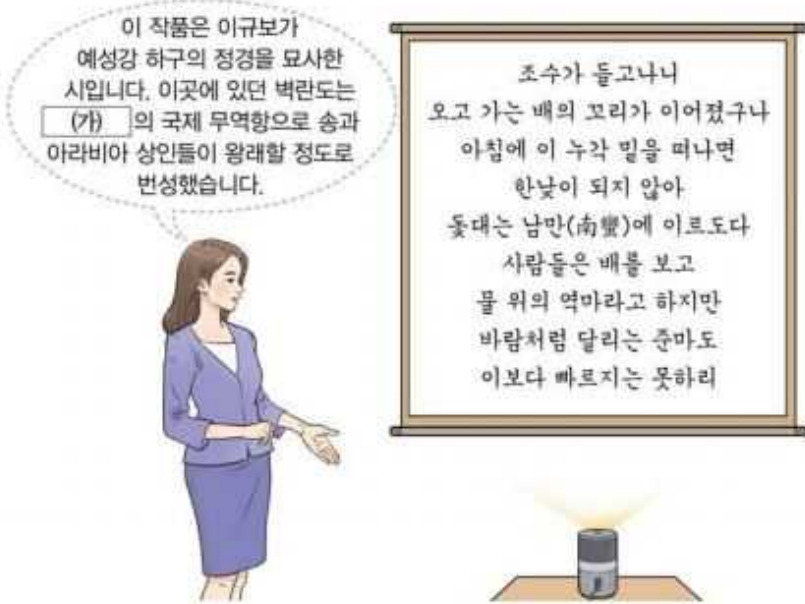
'(나)은/는 귀법사의 주지로서, 왕명에 따라 민중을 교화하고 불법을 널리 퍼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향가인 『보현십원가』 11수를 지어 화엄 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나)'는 고려의 원통대사 균여(923~973)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보현십원가』는 광종 대인 963년과 967년 사이에 지음).

'(다)은/는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였다. 31세에 송으로 건너가 고승들과 불법을 토론하고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귀국하였다.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창시하였으며, 교선 통합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다)'는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라)은/는 12세에 출가하였다. 수행상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천태의 교리에 의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 결사를 결성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라)'는 고려의 원교국사 묘세(1163~1245)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한 승려는 대각국사 의천이다(『신편제종교장총록』, 1090년대).

16 - 고려의 경제 상황

16.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었다.
- ②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조하였다.
- ③ 동시전을 설치하여 시장을 감독하였다.
- ④ 담배, 면화, 생강 등 상품 작물을 널리 재배하였다.
- ⑤ 일본과 교역을 위해 부산포, 염포, 제포를 개항하였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이 작품은 이규보가 예성강 하구의 정경을 묘사한 시입니다. 이곳에 있던 벽란도는 (가)의 국제 무역항으로 송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시에는 '조수가 들고나니/오고 가는 배의 꼬리가 이어졌구나/아침에 이 누각 밑을 떠나면/한낮이 되지 않아/돛대는 남만(南蠻)에 이르도다/사람들은 배를 보고/물 위의 역마라고 하지만/바람처럼 달리는 준마도/이보다 빠르지는 못하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벽란도는 고려의 국제 무역항으로, 따라서 주어진 '(가)'는 고려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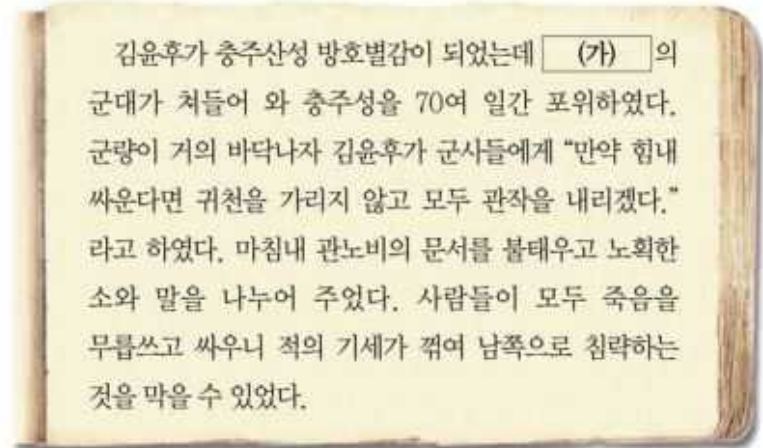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주조된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둔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동시전을 설치하여 시장을 감독한 것은 신라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 ④ 담배, 면화, 생강 등 상품 작물이 널리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일본과 교역을 위해 부산포, 염포, 제포를 개항한 것은 조선 세종 8년인 1426년의 일이다(3포(삼포) 개항). 정확하게 말하면 부산포가 이때 열리고 염포(울산)와 제포(창원, 내이포)는 10년 뒤인 1436년(세종 18)에 추가로 개방하였다.

17 - 대몽 항쟁

17.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윤관을 보내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②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하게 하였다.
- ③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④ 최우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장기 항전에 대비하였다.
- ⑤ 최영이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정답> ④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호별감이 되었는데 (가)의 군대가 쳐들어 와 충주성을 70여 일간 포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군량이 거의 바닥나자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만약 힘내 싸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내리겠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관노비의 문서를 불태우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니 적의 기세가 꺾여 남쪽으로 침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윤후가 지휘한 충주성 전투가 있었던 것은 몽골의 제5차 침입 때로, 고려 고종 40년인 1253년의 일이다(1253.12).

최우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장기 항전에 대비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강화도 천도).

오답 해설>

- ① 윤관(?~1111)이 동북 9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
- ② 박위(?~1398)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것은 고려 창왕 원년인 1389년의 일이다. 참고로 조선 시대에는 이종무(1360~1425)가 세종 원년인 1419년에 쓰시마섬을 다시 토벌하였다.
- ③ 고려의 문신 서희(942~998)가 [거란의 적장 소손녕(?~996)과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거란의 제1차 침입 시).
- ⑤ 최영(1316~1388)이 요동 정벌을 추진한 것은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다(같은 해 음력 5월 이성계 주도의 위화도 회군 발생).

18 - 고려 시대의 문화유산

18. 밑줄 그은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 ②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 ③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 ④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 ⑤ 
법주사
팔상전

정답> ⑤

사진으로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이 제시되어 있고, 이어 '이것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나전 합입니다. 고려에 온 송의 사신 서공이 솜씨가 세밀하여 귀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고려의 나전 칠기 기술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 나전 합을 비롯해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졌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나전칠기는 표면에 옷칠을 하고 조개껍데기를 정교하게 오려 붙인 것으로 불하, 청자와 함께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은 12세기 작품으로, '나전 국화 넝쿨무늬 자합' 또는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 합'이라고도 부른다. 참고로 여기서 '합(奩)'은 그릇의 일종으로, 운두(그릇 둘레의 높이)가 높지 않고 둥글넓적하며 뚜껑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다(17세기). 국보 제55호로 건물 내부에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그린 불화가 있다. 참고로 법주사 안에는 석련지(국보 제64호)와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도 있다.

오답 해설>

①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이다. 고려 시대 청동 정병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고려) 자기가 아니라 은입사 기술이 적용된 금속 공예품이다.

*정병(淨瓶): 본래 깨끗한 물을 담은 수병[물병]으로 승려의 필수품인 18물(物)의 하나이던 것이 차츰 부처님 앞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供養具)로서 그 용도의 폭이 넓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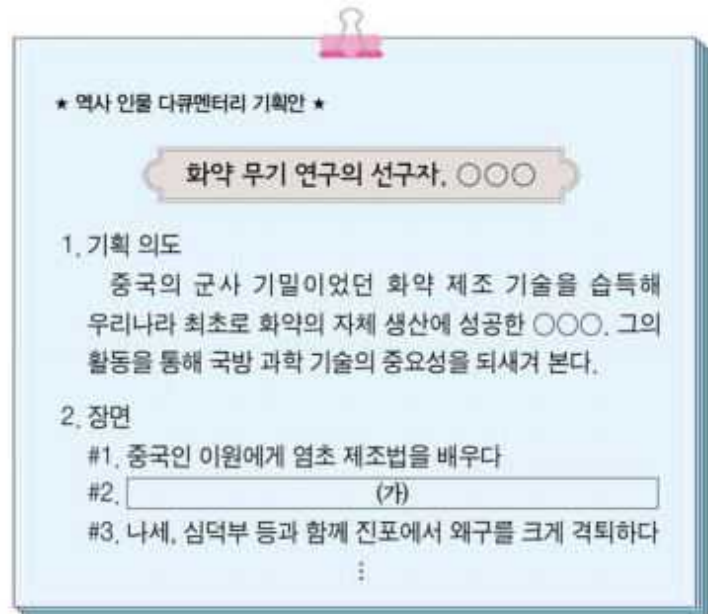
② (신라 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 시대의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다. 높이 2.78m, 광배 높이 3.8m이며,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서 동남쪽을 향하여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 국보 제45호이다.

③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은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고려의 상감 청자이다(13세기 제작)(국보 제68호). 표면에 무늬를 새겨 파내고 다른 재질의 재료를 넣어 제작하였다.

④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은 송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다각다층형) 석탑이다(국보 제48-1호).

19 - 최무선(화통도감)

1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하다
- ②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다
- ③ 불랑기포를 활용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다
- ④ 조총 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에 참여하다
- ⑤ 발화 장치를 활용한 비격진천뢰를 발명하다

정답> ②

'화약 무기 연구의 선구자, ○○○'라는 제목 아래, '1. 기획 의도'로 '중국의 군사 기밀이었던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해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의 자체 생산에 성공한 ○○○. 그의 활동을 통해 국방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되새겨 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 장면'으로 '#1. 중국인 이원에게 염초 제조법을 배우다', '#2. (가)', '#3. 나세, 심덕부 등과 함께 진포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하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는 고려의 무인이자 발명가인 최무선(1325~1395)을 가리킬 수 있다. 참고로 '진포'는 오늘날 금강 하류 일대로 충남 서천 남쪽이다(전북 군산이라는 소수설도 있음).

최무선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에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오답 해설>

① 신기전이 개발된 것은 조선 세종 30년인 1448년의 일이다. 최무선이 화약국에서 제조한 로켓형 화기인 주화(走火)를 개량한 것이다. 또 화차는 여러 번 개발되었는데 첫 번째는 조선 태종 9년인 1409년에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1380~1443)에 의해 완성된 것이 있다.

③ 불랑기포를 활용하여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임진왜란 때인 1593년 1월의 일이다. 『징비록』에 따르면 불랑기(포)는 선조 25년인 1592년에 처음으로 제작되었다(16세기 말에서 17세기 중엽에 많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

④ 조총 부대가 나선 정벌에 참여한 것은 두 차례로 각 효종 5년인 1654년(변급 통솔)과 효종 9년인 1658년(신류 통솔)의 일이다.

⑤ 발화 장치를 활용한 비격진천뢰를 발명한 인물은 조선 선조 때 군기시 화포장이었던 이장손(?~?)이다. 폭탄, 화약 철판(鐵片), 뇌관을 속에 넣고 겉은 쇠로 박처럼 둥글게 짠 것으로, 먼 거리에 쏘아 터지게 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선조 25)에 실전에 사용되어 큰 효과를 거두었다(경주 탈환전, 해군 함포에도 이용)(보물 제860호).

20 - 조선 성종 대의 사실

20.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 ②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 ③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¹이 간행되었다.
- ④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²이 제작되었다.
- ⑤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³이 편찬되었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전하께서 명하신 대로 장악원에 소장된 의궤와 악보를 새로이 교감하여 악학궤범을 완성하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예조 판서 성현을 비롯하여 편찬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도록 하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음악 이론[궁중 음악]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간행된 것은 조선 성종 24년인 1493년의 일이다.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것은 조선 성종 12년인 1481년의 일이다(관찬 인문지리지). 참고로 중종 25년인 1530년에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된 것은 조선 태종 3년인 1403년의 일이다.
- ②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된 것은 조선 광해군 2년인 1610년의 일이다. 저자인 허준(1539~1615)이고, 이를 내의원⁴에서 출간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
- ③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¹이 간행된 것은 조선 영조 22년인 1746년의 일이다.
- ④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내편)²이 제작된 것은 조선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이순지, 김담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21 - 중종반정

2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윤필상, 유순 등이 폐비(廢妃)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며 "시호와 휘호를 함께 의논하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시호만 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하였다. ……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폐비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사약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 등을 승정원일기에서 조사하여 아뢰라."라고 하였다.

(나)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하여, 자신들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해서 ……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詭激)^{*}이 버릇되게 하고, 일을 의논할 때에도 조금만 이익을 세우면 반드시 극심한 말로 배척하여 꺾어서 따르게 하였다. …… 조광조·김정 등을 원방(遠方)에 안치하라."라고 하였다.

*궤격(詭激): 언행이 정상을 벗어나고 격렬함

- ①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다.
- ②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 ③ 이괄이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였다.
- ④ 성희안 일파가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내었다.
- 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정답> ④

(가)에 '윤필상, 유순 등이 폐비(廢妃)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며, 시호와 휘호를 함께 의논하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시호만 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폐비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사약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 등을 승정원일기에서 조사하여 아뢰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폐비 윤씨'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는 조선 연산군 10년인 1504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는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하여, 자신들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해서 ……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詭激)이 버릇되게 하고, 일을 의논할 때에도 조금만 이익을 세우면 반드시 극심한 말로 배척하여 꺾어서 따르게 하였다. …… 조광조·김정 등을 원방(遠方)에 안치하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조선 중종 14년인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궤격(詭激): 언행이 정상을 벗어나고 격렬함

(이조참판을 지낸) 성희안(1461~1513)과 (중추부지사) 박원종(1467~1510) 일파가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낸 것은 연산군 12년인 1506년 9월의 일이다(중종반정). 반정 세력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을 왕[중종]으로 추대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성삼문(1418~1456)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한 것은 조선 세조 2년인 1456년의 일이다(단종 복위 운동, 사육신).
- ②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윤임[1487~1545, 대운의 거두]이 제거된 것은 을사사화 때의 일이다(1545, 조선 명종 원년).
- ③ 이괄(1587~1624)이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한 것은 조선 인조 2년인 1624년의 일이다.
- 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1464~1498) 등이 화를 입은 것은 무오사화 때의 일이다(1498, 조선 연산군 4).

22 - 사헌부

22.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용어 해설

(가)

1. 개요

조선 시대에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기구이다. 대사헌, 집의, 장령, 감찰 등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다.

2. 관련 사료

건국 초기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설치하였다. …… 『경국대전』에는 “정사를 논평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허위를 금지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 『순암집』 -

- ① 업무 일지인 내각일력을 작성하였다.
- ② 고려의 삼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 ③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불리었다.
- ④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다.
- ⑤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⑤

'역사 용어 해설'이라는 제목 아래 '(가)'가 나와 있다. 이어 '1. 개요'로 '조선 시대에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기구이다. 대사헌, 집의, 장령, 감찰 등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2. 관련 사료'로, '건국 초기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설치하였다. …… 『경국대전』에는 정사를 논평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허위를 금지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기구'는 관리 감찰 기관인 사헌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사헌부는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업무 일지인 내각일력을 작성한 기구는 규장각이다(1776, 정조 즉위년). 규장각은 정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 기관으로, 내각일력(內閣日曆)은 규장각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이다. 어제(御製)의 봉안, 검서 등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정사나 왕의 동정, 소속 관원의 근무 상황까지 수록되어 있다.
- ② 고려의 삼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 조선의 기구는 호조이다. 고려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
- ③ 은대(銀臺), 후원(喉院), 정원(政院), 대언사(代言司)라고도 불린 기구는 승정원이다(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로 칭함).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관장한 기구로 왕의 비서 기관이다.
- ④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한 기구는 비변사이다.

23 - 조선 숙종 대의 환국

23.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임금이 궐내에 있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음을 듣고 노하여 이르기를, “궐내에서 쓰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명회도 못하던 짓이다.”라고 하였다. …… 임금이 허적이 당파가 많아 기세가 당당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결심하였다.

(나) 비망기를 내려, “국운이 안정되어 왕비가 복위하였으니,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한 의리이다. 장씨의 왕후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 주되,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예는 폐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元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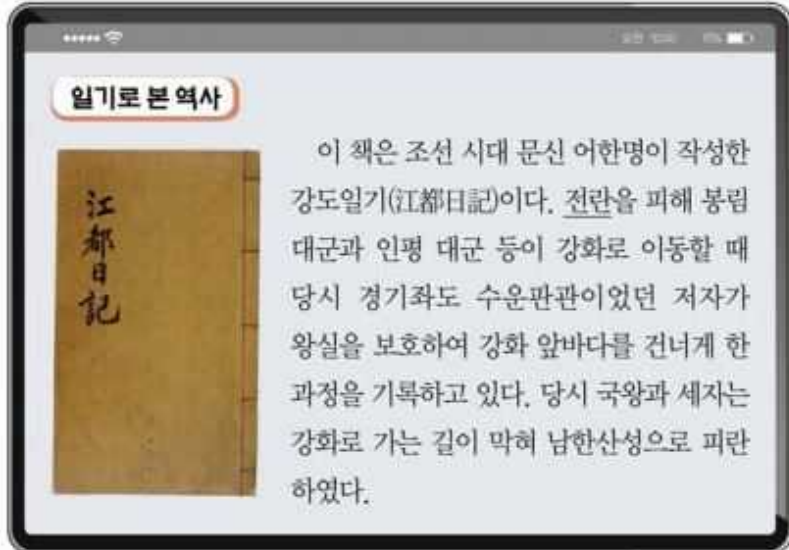
정답> ②

(가)에 '임금이 궐내에 있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음을 듣고 노하여 이르기를, 궐내에서 쓰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명회도 못하던 짓이다'라고 하였다. …… 임금이 허적이 당파가 많아 기세가 당당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결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목재) 허적(1610~1680)의 궁중 장막 사용(과 그의 서자 허견의 역모 고변 사건)'으로, 경신환국과 관련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1680, 조선 숙종 6). (나)에는 '비망기를 내려, 국운이 안정되어 왕비가 복위하였으니,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한 의리이다. 장씨의 왕후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 주되,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예는 폐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인현 왕후(1667~1701)가 복위하고 장희빈(1659~1701)이 축출당한 내용으로, 갑술환국과 관련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1694, 조선 숙종 20). (다)에는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元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자의 명호를 정하는 일과 관련해 노론[서인]의 영수 우암 송시열(1607~1689)이 축출되는 내용으로, 기사환국과 관련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1689, 조선 숙종 15).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다)-(나)'가 된다.

24 - 병자호란

24. 밑줄 그은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 ②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 ③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 ④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⑤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하였다.

정답> ④

'일기로 본 역사'라는 제목 아래 '이 책은 조선 시대 문신 어한명이 작성한 강도일기(江都日記)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전란을 피해 봉림 대군과 인평 대군 등이 강화로 이동할 때 당시 경기좌도 수운판관이었던 저자가 왕실을 보호하여 강화 앞바다를 건너게 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국왕과 세자는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전란'은 병자호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636, 조선 인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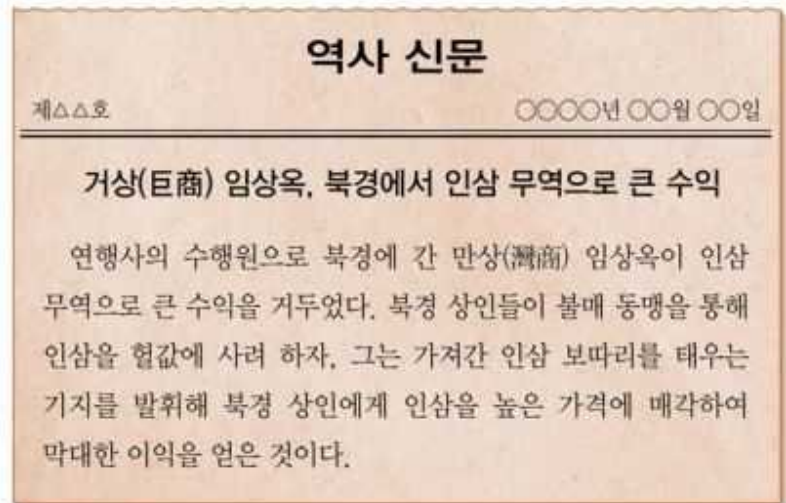
임경업(1594~1646)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에 대비한 것은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정문부(1565-1624)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끈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1592, 이때의 승전이 '북관대첩*비'에 새겨짐).
*북관대첩(北關大捷): 선조 25년인 1592년 9월부터 선조 26년인 1593년 2월까지 정문부가 이끄는 조선군에 의해 수행된 함경도 북부인 북관 지역 수복 전투를 가리킨다.
- ② 강홍립(1560~1627)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한 것은 광해군 11년인 1619년 3월의 일이다.
- ③ 김시민(1554~1592)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친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1592년 10월에 있었던 제1차 진주성 전투를 이끌었다. 참고로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이듬해인 1593년 6월에 있었다.
- ⑤ 최윤덕(1376~1445)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인 이만주 부대를 정벌한 것은 조선 세종 15년인 1433년의 일이다.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유역을 개척하고 여언·자성·무창·우예 등 4군을 설치하였다. 최윤덕이 압록강 중류의 여진족을 정벌한 이 사건을 '파저강 토벌', '파저강 야인 정벌', '파저강 전투' 등으로 부른다(파저강은 일명 '동가강').

25 -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25.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 ②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 ③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 ④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정답> ③

'거상(巨商) 임상옥, 북경에서 인삼 무역으로 큰 수익'이라는 제목 아래 '연행사의 수행원으로 북경에 간 만상(灣商) 임상옥이 인삼 무역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 북경 상인들이 불매 동맹을 통해 인삼을 헐값에 사려 하자, 그는 가져간 인삼 보따리를 태우는 기지를 발휘해 북경 상인에게 인삼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는 만상의 북경에서의 인삼 무역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조선 후기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즉 기존의 두모포 왜관*이 협소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왜인들의 잦은 요청을 수용하여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에 초량 왜관이 새로 설치되었다(부산 중구 일대).

*두모포(豆毛浦) 왜관: 조선 선조 40년인 1607년 부산 두모포에 설치되었다. 부산 두모포는 현 부산 동구청이 있는 자리이다[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1(수정동)].

오답 해설>

- ①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된 것은 고려 숙종 대(재위 1095-1105)이다(1102, 고려 숙종 7).
- ②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한 나라는 발해이다(솔빈부의 특산물).
- ④ 당항성, (전남)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일이다.
*(통일) 신라의 최대 무역항은 울산항이었고, 당항성은 중국의 산둥반도와 연결된 일종의 무역 북로, (전남) 영암은 중국의 양쯔강 지역과 연결된 무역 남로의 무역항이었다. 9세기 전반에는 청해진도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 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경시서가 설치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26 - 조선 정조가 추진한 정책

26.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서호천을 따라
(가) 의 자취를 느끼다

우리 역사 동아리에서는 (가) 와/과 관련된 유적을 돌아보는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축만제
왕이 수원 화성 및 장용영 운영을 위해 조성한 둔전의 수리 시설

노송지대
왕이 현릉원* 식목관에 내탕금*을 내려 소나무 등을 심도록 한 곳
*현릉원: 왕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무덤

지지대비
왕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아들 순조가 건립한 비

■ 일시: 2022년 10월 22일 10시
■ 출발 장소: 서호 공원

- ①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 ② 균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④ 제한된 규모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 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정답> ③

'서호천을 따라 (가)의 자취를 느끼다'는 제목 아래 '우리 역사 동아리에서는 (가)와/과 관련된 유적을 돌아보는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서호 공원이 출발지로, 축만제(왕이 수원 화성 및 장용영 운영을 위해 조성한 둔전의 수리 시설), 노송지대(왕이 현릉원 식목관에 내탕금*을 내려 소나무 등을 심도록 한 곳), 지지대비(왕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아들 순조가 건립한 비)가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의 제22대 국왕인 정조(재위 1776-1800)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내탕금(內帑金): 내탕고에 넣어 두고 왕실이 왕실을 위하여 사용하던 돈을 가리킨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신해통공).

오답 해설>

- ①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시행한 것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의 일이다.
- ② 균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제정한 것은 영조 26년인 1750년의 일이다.
- ④ (일본과) 제한된 규모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를 체결한 것은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 계해약조는 조선이 대마도주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으로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삼[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
- 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세조 12년인 1466년의 일이다.

27 - 진주 농민 봉기

27.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진주 안핵사 박규수에게 하교하기를, "얼마 전에 있었던 진주의 일은 전에 없던 변괴였다. 관원은 백성을 달래지 못하였고, 백성은 패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다. 누가 그 허물을 책임져야 하겠는가. 신중을 기하여 혹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포리(逋吏)*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할 방법을 상세히 구별하라."라고 하였다.

*포리(逋吏):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린 아전

- ①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하였다.
- ②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 ③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 ⑤ 윤원형 일파가 정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정답> ③

'진주 안핵사 박규수에게 하교하기를, 얼마 전에 있었던 진주의 일은 전에 없던 변괴였다. 관원은 백성을 달래지 못하였고, 백성은 패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다. 누가 그 허물을 책임져야 하겠는가. 신중을 기하여 혹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포리(逋吏)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할 방법을 상세히 구별하라'라고 하였다. '진주 안핵사 박규수(1807~1876)'와 '진주의 일'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에 일어난 진주 농민 봉기[임술 농민 봉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포리(逋吏):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린 아전

진주 농민 봉기의 수습책(안핵사 박규수 건의)으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1862.5).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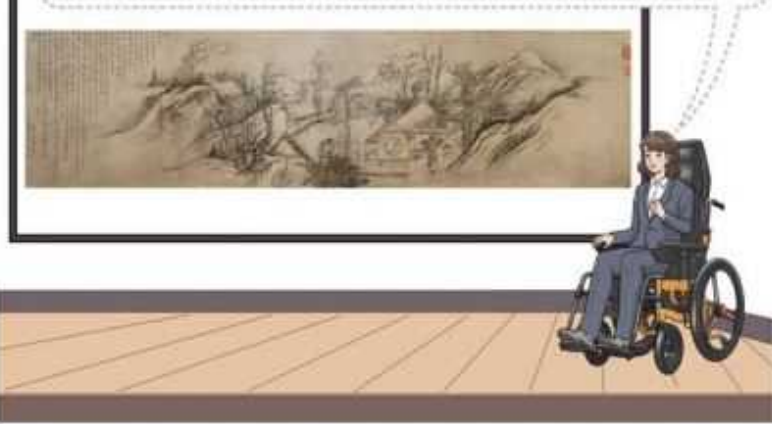
- ①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한 사건은 홍경래의 난이다(1811.12)
- ②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된 사건은 동학 농민군의 제2차 봉기이다(1894.9).
- ④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난 사건은 갑신정변이다(1884.12).
- ⑤ 윤원형 일파(소윤파)가 정국을 주도한 시기는 조선 중기인 명종 대(재위 1545-1567, 제13대)이다. 윤원형(1503~1565) 일파(소윤 세력)가 정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농민 봉기)으로는 (대표적으로) 임궽정의 난을 들 수 있다. 임궽정(?~1562)이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의적'으로 활약한 것은 조선 명종 대(재위 1545-1567)이다. 임궽정은 임거정(林巨正) 또는 임거질정(林居叱正)이라고도 하는 바 성호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앞시대의 홍길동, 뒷시대의 장길산과 함께 임궽정을 조선의 3대 도적으로 꼽았다.

28 - 단원 김홍도의 작품(벼타작도)

28. (가) 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작품은 단원 (가) 이/가 그린 추성부도(秋聲賦圖)로, 인생의 허망함과 쓸쓸함을 묘사한 글인 추성부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년에 자신의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도화서 화원 출신인 그는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정답> ②

'이 작품은 단원 (가)이/가 그린 추성부도(秋聲賦圖)로, 인생의 허망함과 쓸쓸함을 묘사한 글인 추성부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죽음을 앞둔 노년에 자신의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도화서 화원 출신인 그는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단원 김홍도(1745~?)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선지 중 ②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중 하나인 '벼타작도'이다.

오답 해설>

① 겸재 정선(1676~1756)의 인왕제색도이다. 인왕제색도는 '금강전도'와 함께 정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1751년작, 황혼에 접어든 일흔 여섯의 나이에 완성).

③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혜원 신윤복(1758~?)의 단오풍정이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 추천(그네타기)놀이를 나온 한 떼의 여인들이 시냇가에 그네를 매고 냇물에 몸을 씻으며 즐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④ 표암 강세황(1713~1791)의 영통동구도이다(송도기행첩 중의 한 점)(1757, 영조 33). 산과 바위에서 서양화 기법인 원근법과 명암법(음영법)이 반영되었다.

⑤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이다.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유배가기 전이나 유배간 뒤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의리로 대하는 이상적(1804~1865)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그려 준 것이다.

29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역사서 (1)

[29~30]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하셨습니다. 폐하께서 이르시기를, "삼국은 중국과 통교 하였으므로 『후한서』나 『신당서』에 모두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히 실리지 않았다. 우리의 옛 기록은 빠진 사실이 많아 후세에 교훈을 주기 어렵다. 그러므로 뛰어난 역사서를 완성하여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삼가 삼국 이후의 여러 역사서를 모으고 중국의 역사서에서 가려내어 연도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범례는 『자치통감』에 의거하였고, 『자치통감강목』의 취지에 따라 번잡한 것은 줄이고 요령만 남겨두도록 힘썼습니다. 삼국이 서로 대치한 때는 삼국기라고 하였고, 신라가 통합한 시대는 신라기라고 하였으며, 고려 시대는 고려기라 하였고, 삼한 이전은 외기라고 하였습니다.

(다) 옛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인의로 가르침을 썼으니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러한 후에야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이 실린 까닭이다.

(라)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면서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살면서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김씨가 동남쪽에 살면서 신라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그러나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그러나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한다.

29. (가)~(라) 역사서를 편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②

(가)에 '우리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하셨습니다. 폐하께서 이르시기를, 삼국은 중국과 통교하였으므로 『후한서』나 『신당서』에 모두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히 실리지 않았다. 우리의 옛 기록은 빠진 사실이 많아 후세에 교훈을 주기 어렵다. 그러므로 뛰어난 역사서를 완성하여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대표적인 사서인 『삼국사기』를 가리킨다(1145, 고려 인종 23년).

(나)에는 '삼가 삼국 이후의 여러 역사서를 모으고 중국의 역사서에서 가려내어 연도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범례는 『자치통감』에 의거하였고, 『자치통감강목』의 취지에 따라 번잡한 것은 줄이고 요령만 남겨두도록 힘썼습니다. 삼국이 서로 대치한 때는 삼국기라고 하였고, 신라가 통합한 시대는 신라기라고 하였으며, 고려 시대는 고려기라 하였고, 삼한 이전은 외기라고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로, 단군조선[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자 편년체 사서인 『동국통감』을 가리킨다(1485, 조선 성종 16).

(다)에는 '옛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인의로 가르침을 펴오니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러한 후에야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이 실린 까닭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기이편'이 실렸다는 부분에서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285, 고려 충렬왕 11). 『삼국유사』는 왕력편, 기이편, 흥법편 등 5권 9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교 중심의 역사적 사실을 비롯한 민간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라)에는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면서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살면서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김씨가 동남쪽에 살면서 신라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그러니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그러니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역사서로 영재 유득공(1748~1807)이 지은 『발해고』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784, 조선 정조 8).

이상의 역사서를 편찬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다)-(나)-(라)'가 된다.

30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역사서 (2)

30. (가)~(라)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기> —

ㄱ. (가) -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ㄴ. (나) -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다.
 ㄷ. (다) -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ㄹ. (라) -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ㄱ. (가)는 『삼국사기』로,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ㄴ.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다.

ㄷ. (다)는 『삼국유사』로,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기사본말체). 옳은 설명이다.

ㄹ.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것은 (나)의 『동국통감』이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31 - 신미양요(척화비)

31.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 ②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 ③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 ④ 신유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 ⑤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정답> ①

'이곳은 어재연 장군과 그의 군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충장사입니다. 어재연 장군의 부대는 (가) 때 광성보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 결사 항전하였지만 끝내 함락을 막지 못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 고종 8년인 1871년 5월에 발발한 신미양요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미양요 직후 조선 정부는 흥선 대원군의 주도로)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서울 종로 네거리, 경기도 강화, 경상도 동래군·함양군·경주·부산진 등).

오답 해설>

- ②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7월의 일이다.
- ③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1866.10).
- ④ 신유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
- ⑤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독일계 유대 상인인 오페르트(1832~1903)는 흥선 대원군 부친인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다 실패하였다(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

32 - 통리기무아문 설치

32. (가), (나)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1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한다.

(나) 제1관 앞으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제5관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한다.

- ① 공사 노비법이 혁파되었다.
- ②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 ③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었다.
- ④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되었다.
- ⑤ 지방 행정 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정답> ②

(가)의 제1관으로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가, 제10관으로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제10관은 치외법권 규정). 이를 통해 (가)는 1876년 2월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나)의 제1관으로 '앞으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5관으로 '.....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관세 자주권 규정). 이를 통해 (나)는 1882년 5월에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것은 조선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공사 노비법이 혁파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7-12).
- ③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된 것은 광무 2년이자 고종 35년인 1898년 1월의 일이다.
- ④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1895.8-1896.2).
- ⑤ 지방 행정 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된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12-1895.8).

33 - 임오군란

3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발신: 조선 주재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수신: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이달 23일 오후 5시 성난 군중 수백 명이 갑자기 공사관을 습격하여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며 방화함. 전력으로 방어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원병이 오지 않았음. 한쪽을 돌파하여 왕궁으로 가려 해도 성문이 열리지 않았음. …… 성난 군중이 왕궁 및 민태호와 민겸호의 집도 습격했다고 들었음. …… 교관 호리모토 외 8명의 생사는 알 수 없음.

- ①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 ③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④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 ⑤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정답> ④

발신이 '조선 주재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이고, 수신 이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로 나와 있다. 이어 '이달 23일 오후 5시 성난 군중 수백 명이 갑자기 공사관을 습격하여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며 방화함. 전력으로 방어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원병이 오지 않았음. 한쪽을 돌파하여 왕궁으로 가려 해도 성문이 열리지 않았음. …… 성난 군중이 왕궁 및 민태호와 민겸호의 집도 습격했다고 들었음. …… 교관 호리모토 외 8명의 생사는 알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민태호와 민겸호의 집도 습격', '교관 호리모토'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는 조선 고종 19년인 1882년 음력 6월에 일어난 임오군란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882.6-7).

임오군란은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오답 해설>

- ① (동학 농민군과 조선 정부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된 것은 1894년 5월의 일이다(1894.5.8). 동학 농민군은 1894년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였으나 일본군과 청군이 개입하였다는 소식에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전주성에서 물러났다.
- ②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한 사건으로는 독립 협회의 자강 개혁 운동을 들 수 있다(관민 공동회 활동, 1898.10, 헌의 6조 채택). 임오군란에서는 입헌 군주제 수립과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제기되지 않았다. 참고로 이후 애국 계몽 운동 단체 중에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헌정 연구회가 있다(1905.5).
- ③ 창산 김기수(1832~?)가 (1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 때문이다(1876.2).
- ⑤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한 사건은 갑신 정변이다(1884.12).

34 - 한힌샘 주시경

3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문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②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 ③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집필하였다.
- ④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
- ⑤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국어 연구에 앞장선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호는 한힌샘으로, 독립신문사의 교보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큰 보자기에 책을 넣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 주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대화 속 '(가)'는 개화기의 한글학자 한힌샘 주시경(1876~1914)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주시경의 또다른 호로 '한힌메'도 있다.

주시경은 국문 연구소의 연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문법을 정리하였다(1907.7).

오답 해설>

- ②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2년 10월의 일이다.
- ③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집필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15.6).
- ④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士民必知)를 한글로 저술한 인물은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이자 육영 공원에 교사로 초빙된 호머 헐버트(1863~1949)이다(1891, 고종 28).
- ⑤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은 위당 정인보(1893~1950)와 민세 안재홍(1891~1965)이다(1934~1938).

35 - 국채 보상 운동

35.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우리나라가 채무를 지고 우리 백성이 채노(債奴)*가 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 대항제 폐하께서 진 외채가 1,300만 원이지만 채무를 청산할 방법이 없어 밤낮으로 걱정하시니, 백성된 자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보상하려고 해도 겨를이 없습니다. …… 우리 동포는 빨리 단체를 결성하여 열성적으로 의연금을 내어 채무를 상환하고 채노에서 벗어나, 머리는 대한의 하늘을 이고, 발은 대한의 땅을 밟도록 해 주시기를 눈물을 머금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채노(債奴):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사람

- ①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 ②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 ③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④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 ⑤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정답> ⑤

'우리나라가 채무를 지고 우리 백성이 채노(債奴)*가 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항제 폐하께서 진 외채가 1,300만 원이지만 채무를 청산할 방법이 없어 밤낮으로 걱정하시니, 백성된 자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보상하려고 해도 겨를이 없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는 빨리 단체를 결성하여 열성적으로 의연금을 내어 채무를 상환하고 채노에서 벗어나, 머리는 대한의 하늘을 이고, 발은 대한의 땅을 밟도록 해 주시기를 눈물을 머금고 간절히 요구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07년 2월에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8.7).

*채노(債奴):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사람
국채 보상 운동에는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일제가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같은 해 5월에 시행),
- ②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한 민족 운동은 형평 운동이다. 1923년 4월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어 백정(白丁)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맞섰다.
- ③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한 민족 운동은 독립 협회가 주도한 자주 국권 운동이다. 독립문이 세워진 것은 고종 34년이자 광무 원년인 1897년 11월의 일이다.
- ④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한 민족 운동은 1920년대의 물산 장려 운동이다.

36 - 신민회

36.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편지는 비밀 결사인 이 단체의 재무를 총괄한 전덕기가 안창호에게 보낸 것이다. 105인 사건으로 이 단체의 주요 회원인 양기탁, 이승훈 등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대성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전하고 있다.

- ①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 ②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③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④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⑤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정답> ⑤

'이 편지는 비밀 결사인 이 단체의 재무를 총괄한 전덕기가 안창호에게 보낸 것이다. 105인 사건으로 이 단체의 주요 회원인 양기탁, 이승훈 등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대성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단체'는 신민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7.4~1911.9).

신민회는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서울, 평양, 대구에서)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19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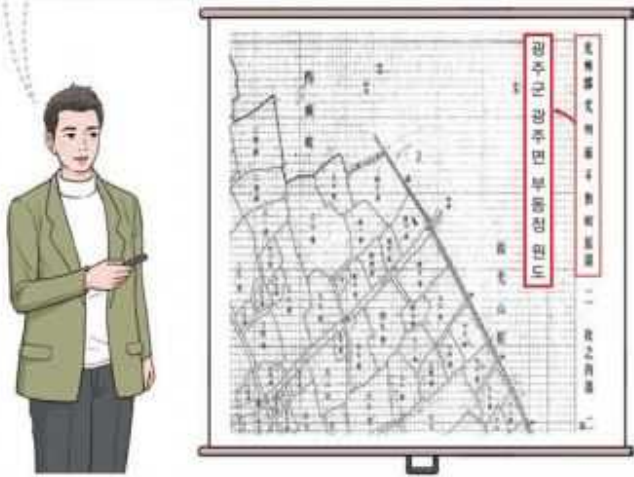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된 단체는 신간회이다 (1927.2~1931.5).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는 1926년 11월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정우회 선언(특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의 일시적인 공동 전선의 필요성을 강조)을 발표하였다(1926.11.15).
- ②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이다 (1919.11). 단재 신채호(1880~1936)는 의열단장 김원봉(1898~1958)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 혁명 선언(문)을 작성하였다(1923.1).
- ③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이다 (1904.7).
- ④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한 단체는 독립 협회이다. 독립 협회는 1898년 10월 개최된 관민 공동회에서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헌의 6조 채택).

37 - 191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

37.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일제가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작성한 지적 원도의 일부입니다. 토지를 측량해 그 위치와 경계 및 지번 등을 표시하였습니다.



- ① 경성 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 ② 근우회의 창립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 ③ 보병사 일행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관리
- ④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 ⑤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 해군

정답> ④

'이것은 일제가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작성한 지적 원도의 일부입니다. 토지를 측량해 그 위치와 경계 및 지번 등을 표시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토지 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토지 조사령이 공포된 1912년 8월 이후부터 1918년 11월까지이다. 따라서 자료에서 밑줄 그은 '시기'는 1910년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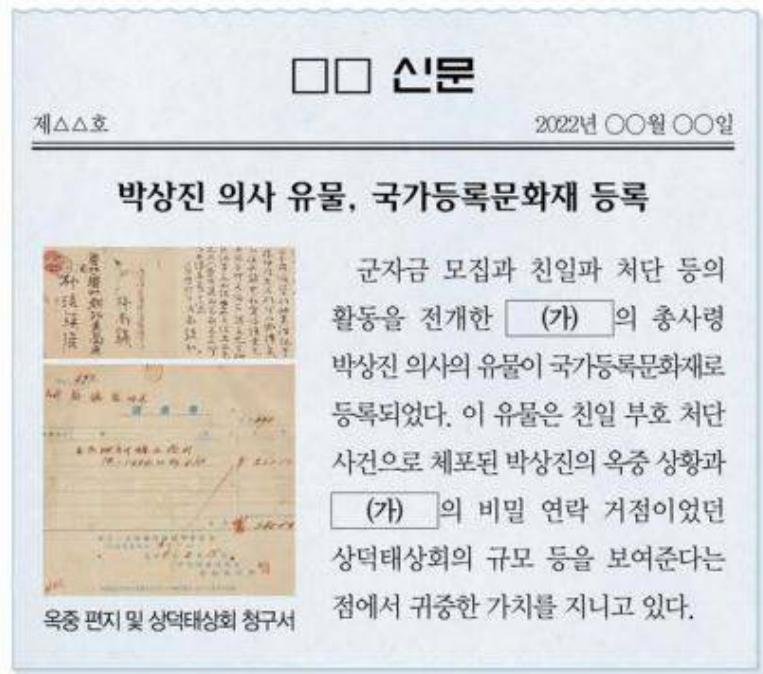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집행하도록 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1912년 4월부터의 일이다(~1920년 3월 조선 태형령 폐지).

오답 해설>

- ①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 ②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가 창립된 것은 1927년 5월의 일이다(1931년 봄경에 정식 해산 발표도 없이 해체).
- ③ 미국에 보병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과 부대신 홍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된 보병사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것이며, 미국 뉴욕에서 채스터 앨런 아서 미국 대통령(재임 1881-1885, 제21대)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 ⑤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은 조선 고종 22년인 1885년 4월부터의 일이다(~1887.2)(거문도 사건).

38 - 대한 광복회

3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④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⑤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정답> ②

'박상진 의사 유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라는 제목 아래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한 (가)의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유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유물은 친일 부호 처단 사건으로 체포된 박상진의 옥중 상황과 (가)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상덕태상회의 규모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대구에서 비밀리에 조직된 대한 광복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15.7~1918.1). 대한 광복회는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오답 해설>

- 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 자강회이다(1906.4~1907.8).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단체는 신한 청년당 [신한 청년당]이다(1918.8). 당시 우사 김규식(1881~1950)이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되었다(1919.5).
- ④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 1945년 초부터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1945년 3월에 국내 정진군 총사령부 조직).
- ⑤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민권 신장을 추구한 단체는 독립 협회이다(1896.7~1898.12).

39 - 3·1 운동

39.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

'딜쿠샤'가 복원되어 전시관으로 개관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시종로구 사직로 2길 17
개관일: 2021년 00월 00일

◎ 소개
'기쁜 마음의 궁전'을 뜻하는 딜쿠샤는 미국인 앨버트 W. 테일러가 지은 벽돌집으로, 테일러와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거주한 곳이다.
미국 연합통신(AP)의 임시 특파원으로 활동한 테일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발견하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으며, (가) 당시 일제가 자행한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취재해 보도하였다.

- ①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 ②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 ⑤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정답> ③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이라는 제목 아래 소개하는 글로 '기쁜 마음의 궁전을 뜻하는 딜쿠샤는 미국인 앨버트 W. 테일러(1875-1948)가 지은 벽돌집으로, 테일러와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거주한 곳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미국 연합통신(AP)의 임시 특파원으로 활동한 테일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발견하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으며, (가) 당시 일제가 자행한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취재해 보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는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3·1 운동 결과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1929.11).
- ②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전개한 운동은 6·10 만세 운동이다(1926.6).
- ④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광주에서 비롯된 항일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듬해인 1930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 ⑤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된 운동은 6·10 만세 운동이다. 그 결과 6·10 만세 운동은 학생 운동 세력이 주도하였다. 하지만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협력이 협력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40 - 대한민국 임시 정부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저는 이동녕으로 이곳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임시 의정원 초대 의장으로 삼권 분립에 기초한 (가)의 헌법 제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주석 등을 역임하였고, (가)이/가 상하이를 떠나 이동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독립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보기>

- ㄱ.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 ㄴ.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ㄷ. 구미 위원부를 조직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 ㄹ. 이륜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저는 이동녕으로 이곳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저는 임시 의정원 초대 의장으로 삼권 분립에 기초한 (가)의 헌법 제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주석 등을 역임하였고, (가)이/가 상하이를 떠나 이동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독립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 ㄱ.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쓴 단체[종교]는 천도교이다(1906.6).
- ㄴ.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곳은 서간도[남만주] 지역이다(1911.6). 신흥 강습소는 이후 1919년 5월에 신흥 무관 학교로 개명하였다.
- ㄷ. 구미 위원부를 조직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1919.9). 옳은 설명이다.
- ㄹ. 이륜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1919.7).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41 - 일제 강점기 말의 사실

41.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 ②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 ③ 여자 정신 근로령으로 한국인 여성이 강제 동원되었다.
- ④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암태도 소작 쟁의가 전개되었다.
- 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정답> ③

'쌀 공출 선전 포스터'가 나와 있고, '이 포스터는 일제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였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전쟁에 필요한 쌀을 강제로 공출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제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벌인 전쟁은 태평양 전쟁[제2차 세계 대전]이므로 밑줄 친 '시기'는 일제 강점기 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 말은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 전쟁 이후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까지의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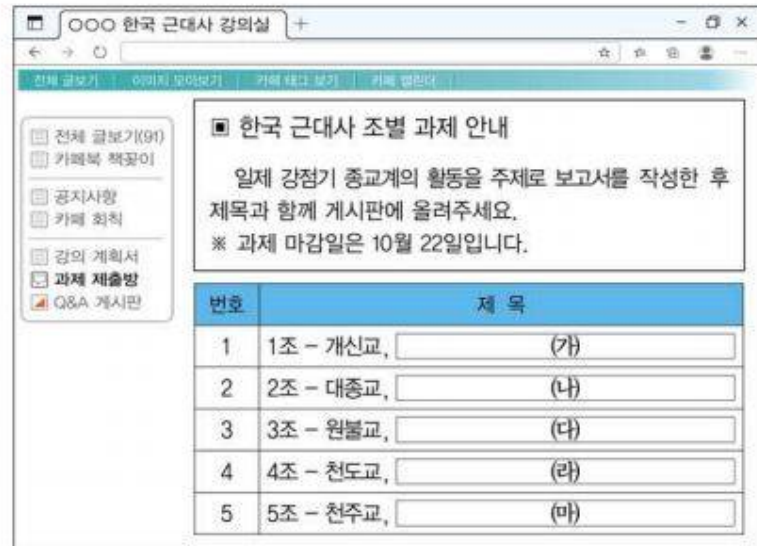
한국인 여성을 강제 동원한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된 것은 1944년 8월의 일이다(1944.8.22)(일왕 칙령 제519호).

오답 해설>

- ① 메가타 다네타로(1853~1926)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1909.12).
- ②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 미쓰야 협정이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1880~1959)와 중국 동삼성[만주]의 군벌인 장쥘린(1873~1928)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만주에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이를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넘길 것을 규정하였다(독립군 탄압).
- ④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암태도 소작 쟁의가 전개된 것은 1923년 8월의 일이다(~1924.8).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농민들은 1년 동안 소작 쟁의를 벌여 결국 승리하였다.
- 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이것은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이며, 1920년 4월에 이르러서는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42 - 근대 종교계의 활동

42.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이다
- ② (나) -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다
- ③ (다) -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새생활 운동을 펼치다
- ④ (라) -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다
- ⑤ (마) -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추진하다

정답> ③

'한국 근대사 조별 과제 안내'라는 제목 아래 '일제 강점기 종교계의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조-개신교', '2조-대종교', '3조-원불교', '4조-천도교', '5조-천주교'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원불교는 교조인 박종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추진하였다(1916.4)(1918~1919 간척 사업).

오답 해설>

- ①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인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대종교이다. 홍암 나철(1863~1916)이 1909년 1월에 창시하였으며, 처음에는 명칭이 단군교였다가 이듬해인 1910년 7월 대종교로 개명하였다(민족 고유의 종교).
- ②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종교는 (대종교가 아니라) 천주교이다(1919.4).
-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한 종교는 (천도교가 아니라) 개신교[감리교]이다. 배재 학당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1858~1902)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다(1885.8).
- 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추진한 종교는 (천주교가 아니라) 천도교이다. 정확하게는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1923.5),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1923.3).

43 - 조선 의용대

43.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조선 민족혁명당 창립 제8주년 기념 선언

우리는 중국의 난징에서 5개 당을 통합하여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인 조선 민족혁명당을 창립하였다. …… 아울러 중국과 한국의 연합 항일 진영을 건립하여야 했다. …… 이 때문에 우리는 1938년 (가) 을/를 조직하고 조선의 혁명 청년들을 단결시켜 장제스 위원장의 영도 아래 직접 중국의 항전에 참가하였고, 각 전장터에서 찬란한 전투 성과를 만들어냈다. …… 지난해 가을 (가) 와/과 한국 광복군의 통합 편성을 기반으로 전 민족의 통일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 ①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 ②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③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 ④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국 관내(關內)에서 창설하였다.
- ⑤ 흥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정답> ④

'조선 민족혁명당 창립 제8주년 기념 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중국의 난징에서 5개 당을 통합하여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인 조선 민족혁명당을 창립하였다. …… 아울러 중국과 한국의 연합 항일 진영을 건립하여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때문에 우리는 1938년 (가)을/를 조직하고 조선의 혁명 청년들을 단결시켜 장제스 위원장의 영도 아래 직접 중국의 항전에 참가하였고, 각 전장터에서 찬란한 전투 성과를 만들어냈다. …… 지난해 가을 (가)와/가 한국 광복군의 통합 편성을 기반으로 전 민족의 통일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1938년 10월 중국 관내*인 후베이성 한커우[한구]에서 조직한 조선 의용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참고로 조선 민족혁명당이 창립된 것은 1935년 7월의 일이다(중국 난징).

*관내(關內)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국 관내(關內)에서 창설하였다(1938.10.10).

오답 해설>

- ①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부대는 대한 독립군단(총재 서일)이다(1921.6)(1920년 12월 결성).
- ②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부대는 한국 독립군(총사령 지청천)이다(1933.7).
* 대전자령 : 중국 만주의 헤이룽장성[흑룡강성]에 위치
- ③ (1936년 2월)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친 부대는 동북 인민 혁명군이다. 동북 인민 혁명군은 1933년 9월 중국공산당 만주성 위원회의 주도로 조직된 무장 부대로, 다수의 한국인이 가담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⑤ 흥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부대는 북로 군정서군(총사령 김좌진)이다(1920.10).

44 - 북간도 지역의 민족 운동

44.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2점]

해외 독립운동 유적 조사 보고서

■ 주제: (가) 지역에 서린 항일 독립 정신을 찾아서

■ 조사 내용

1. 김약연의 명동 학교 설립과 교육 활동
2. 이상설이 세운 민족 교육의 요람, 서전서숙
3. 운동주와 송몽규의 민족의식이 싹튼 용정촌

■ 유적 사진





명동 학교
서전서숙 기념비
용정촌 운동주 생가

- ① 권업회가 설립되어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 ②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박용만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 ④ 북로 군정서가 조직되어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 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정답> ④

'해외 독립운동 유적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가) 지역에 서린 항일 독립 정신을 찾아서'가 나와 있다. 이어 조사 내용으로 '1. 김약연의 명동 학교 설립과 교육 활동', '2. 이상설이 세운 민족 교육의 요람, 서전서숙', '3. 운동주와 송몽규의 민족의식이 싹튼 용정촌'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유적 사진으로 '명동 학교', '서전서숙 기념비', '용정촌 운동주 생가'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북간도[동만주] 지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북로 군정서가 조직되어 독립 전쟁을 전개한 곳은 북만주 지역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한 군정부*가 북로 군정서[대한 군정서]로 개편된 것은 1919년 12월의 일이다.

*대한 군정부 직전의 명칭은 대한 군정회였고, 또 그 전의 명칭은 중광단이었다. 중광단은 대종교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로 만주의 간도 지역에서 결성되었다(1911.3).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로 다시 개편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권업회가 설립되어 권업신문을 발간한 곳은 연해주 지역이다. 권업회가 조직된 것은 1911년 2월이고, 이듬해인 1912년 4월에는 (기관지이자) 항일 신문(인 권업신문)이 발행되었다.
- ② 이봉창 의사(1901~1932)가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한 곳은 일본의 도쿄이다(1932.1.8).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8일 도쿄 사쿠라다문(櫻田門)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왕(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 ③ 박용만(1881~1928)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 군단이 창설된 것은 하와이 지역이다(1914.6).
- 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곳은 일본의 도쿄이다(1919.2.8). 최팔용, 서춘, 백관수 등 재일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이 이를 주도하였다(1918.12).

45 - 미군정기의 사실

45. 밑줄 그은 '군정청'이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④ 신한 공사가 설립되어 귀속 재산을 관리하였다.
- ⑤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정답> ④

'서윤복 선수 환영회, 중앙청 광장에서 개최'라는 제목 아래 '제 51회 보스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환영회가 중앙청 광장에서 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하지 중장, 헬릭 준장 등 군정청의 주요 인사와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 정계 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군중이 참석하여, 우리 민족의 의기를 세계에 과시한 서윤복 선수의 우승을 함께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서윤복 선수(1923~2017)가 미국에서 열린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947년 4월 19일이고(2시간 25분 39초라는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 서윤복 선수의 환영회가 서울의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것은 같은 해 6월 23일의 일이다.

신한 공사가 설립되어 귀속 재산을 관리한 것은 1946년 3월의 일이다(1946.3.3~1948.3.22). 참고로 미국의 군정청이 있었던 시기를, '미군정기(미군정체제)'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군정청이 공식 출범한 1945년 9월 20일부터 한국인에게 행정권이 사실상 이양된 1948년 7월 12일까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오답 해설>

-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의 일이다(1953.10.1).
- ②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것은 1962년 1월의 일이다(1962.1.5).
-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1949.8.31). 참고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9월의 일이다(1948.9.22).
- ⑤ 국가보안법 개정안(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난 것은 1958년 12월의 일이다(1958.12.24, 일명 '2·4 파동').

46 - 6·25 전쟁

46.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②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
- ③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
- ④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서울을 수복하였다.
- ⑤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

정답> ①

맨왼쪽에 '대성동 마을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 지대에 위치한 민간인 마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가운데에는 '(가)의 정전 협정 체결 직후 비무장 지대에 남북이 민간인 마을을 하나씩만 남긴다는 후속 합의에 따라 마을로 조성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에는 '자유의 마을'로 불리는 대성동 마을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 지역으로, 외부인은 허락 없이 들어가지 못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애치슨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1950.1.10). 애치슨 선언이란, 1950년 1월 10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1893~1971)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일본-오키나와-필리핀 선으로 한다고 언명한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 ②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진 것은 1950년 8월 18일부터 동년 10월 27일까지(1차)이다. 또 1·4 후퇴가 시작된 1951년 1월 4일부터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2차) 임시 수도로 역할하였다.
 - ③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의해)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된 것은 1950년 12월 15일에서 12월 23일까지의 일이다.
 - ④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서울을 수복한 것은 1950년 9월 28일의 일이다.
 - ⑤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폭로된 것은 1951년 1월 15일의 일이다(1월 15일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같은 해 4월에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의 해체가 결의되었다(1951.4.30).
- *국민 방위군 사건: 6·25 전쟁 1·4 후퇴 당시 국민 방위군의 일부 고급 장교들의 부정부패에 의해 약 9만 명의 장정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한 사건이다.

47 - 10월 유신 선포

47.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3선 개헌을 추진하자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네요.

야당인 신민당과 재야 세력도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를 막아내려 했지요.



- ①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 ② 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 ③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되었다.
-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 ⑤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정답> ⑤

'현대사 사진전'이라는 제목 아래 왼쪽 말풍선에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3선 개헌을 추진하자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네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야당인 신민당과 재야 세력도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를 막아내려 했지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가 발기된 것은 1969년 7월이고,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69년 9월의 일이다(1969.9.14).*

*1969년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 야당(신민회) 의원들을 피하여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계 의원 122명이 모여 기명 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찬성 122표, 반대 0표로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그 후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 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으며, 10월 2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된 것은 1972년 10월의 일이다(1972.10.17).

오답 해설>

- ①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장면 정부]가 출범한 것은 1960년 8월의 일이다(1960.8.12~1961.5.16).
- ②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은 1959년 4월의 일이다(1959.4.30).
- ③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된 것은 5·16 군사 정변 직후인 1961년 5월의 일이다(1961.5.19~1963.12.16).
-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1958년 1월의 일이다(1958.1.13).

48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8.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전국의 언론인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는 젊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질서 유지, 진압이라는 명목 아래 저 잔인한 공수 부대를 투입하여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 살육 하였고 더군다나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 그러나 일부 언론은 순수한 광주 시민의 의거를 불순배의 선동이니, 폭도의 소행이니, 난동이니 하여 몰아부치고만 있습니다. …… 이번 광주 의거를 몇십 년 뒤의 '사건 비화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 사실 그대로 보도하여 주시기를 수많은 사망자의 피맺힌 원혼과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①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 ③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 ④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 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답> ⑤

'전국의 언론인 여러분!'이라는 제목 아래 '지금 광주에서는 젊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질서 유지, 진압이라는 명목 아래 저 잔인한 공수 부대를 투입하여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 살육하였고 더군다나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언론은 순수한 광주 시민의 의거를 불순배의 선동이니, 폭도의 소행이니, 난동이니 하여 몰아부치고만 있습니다. …… 이번 광주 의거를 몇 십 년 뒤의 사건 비화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수많은 사망자의 피맺힌 원혼과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4·19 혁명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고, 곧 허정(1896~1988)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1960.4.27~6.15).
- ②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민주화 운동은 1964년의 6·3 시위이다.
- ③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가 외쳐진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 ④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시위가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49 -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49.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 ②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③ 개성 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 ④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⑤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정답> ②

'오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되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살리는 경제 개발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폐허 속에서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12월의 일이다(1996.12.12)(김영삼 정부 시기, 1993.2-1998.2).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오답 해설>

①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7년 12월의 일이다(1977.12.22).

③ 개성 공단이 건설된 것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의 결과이다.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2000년 8월로,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2년 8월에 이르러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개성 공단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④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6월의 일이다. 참고로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이다.

⑤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10월의 일이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그 전해인 1999년 9월의 일이다.

50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50.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③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⑤ 남북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정답> ③

'금강산 관광객 실은 크루즈, 동해항에서 첫 출항'이라는 제목 아래 '정주영의 소 떼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 첫 해인 1998년 11월 19일의 일이다. 이때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처음 출항하였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9월부터 금강산 육로 관광이 개시되면서 해로 관광은 2004년 1월에 중단되었다(김대중 정부 시기, 1998.2~2003.2). 또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1915~2001)의 소 떼('통일소' 500마리) 방북이 있었던 때는 1998년 6월(1차 '통일소' 500마리)과 10월(2차 '통일소' 501마리)의 일이다(각 1998.6.16/1998.10.27).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은 2000년 6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1991.9.18).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 역시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31).

⑤ 남북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로,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1~22). 당시 50명 규모였으며,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 이 상 -